

The Builder IV.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나타나는 방해와 공격은 당연한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나타나는 방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벽재건에 나선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낸다. 집중한다.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성벽은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방해의 목적은 분명하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냥 심심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를 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마귀의 공격도 없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새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방해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방해할 사람은 없다. 새로운 힘이 싫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방해세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느헤미야 6:1]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계셈과 그 밖의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 도비야와 산발랏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억하자.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아직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 방해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 일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방해가 어떻게 일어나며, 또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느헤미야를 통해 생각해보자.

2. 원수의 방해

[느헤미야 6:9, 13]

9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겹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13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겹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1) 실체가 없는 두려움

원수의 공격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이다. 믿음의 사고란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속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내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느헤미야를 향한 원수의 목적은 분명하다. 느헤미야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원수의 공격 목표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이다. '두려움'은 영적인 영역이다. 두려움의 원인은 '연약함'이다. 원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안다. 사실 연약함은 죄의 결과이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크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연약함 위에 임하는 은혜의 축복이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친밀한 관계의 확신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를 향한 원수가 주는 헐박과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그 허상과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맞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존재이다. 오히려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기 위해 오셨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실체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2) 두려움은 영적인 영역이다. 기도로 이겨야 한다.

기도로 먼저 내면을 돌파하라. 힘을 달라고 구하라.

[느헤미야 6:9]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겹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바로 그 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에 힘을 얻어야 한다. 먼저 나의 내면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야 한다. 내면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이다. 내면의 두려움이 떠나는 때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장소에서 일어난다. 기도하면 속사람이 힘을 얻는다.

두려움은 내면이 흑암이 되는 것이다. 빛이 없어지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어두운 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두렵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때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불을 켜면 된다. 빛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다.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빛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기도는 빛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이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여야 한다. 그때 빛이 내면 안에 실재가 된다. 어두움은 떠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 안정감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승리한다.

(3) 마음에 힘을 얻었으면 원수를 대적하여 기도하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내게 두려움을 주었던 원수를 향한 공격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먼저 원수의 진을 부셔서 해결해야 한다.

[느헤미야 6:14]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겹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겹을 주었던 원수의 공격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느헤미야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방해가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마라. 먼저 기도의 방을 내면에 만들어 이겨야 한다. 결국 승리한다.

(4) 거짓말

[느헤미야 6:2]

산발랏과 계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내 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흥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거짓말은 진실로 이겨야 한다. 상황과 소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도비야와 산발랏은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만들어 느헤미야를 공격했다(2절).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진리와 사실로 오지 않는다. 원수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은 아주 분명하다. 진리 위에 있어야 한다. 즉, 본질로 승부하라. 머리를 쓰면 망한다. 사람이 쓰는 머리는, 더 간교한 머리가 나타나면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언제나 진리를 이길 수 없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 비본질이 본질을 이길 수 없다. 원칙 위에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 느헤미야를 죽이려 만들었던 거짓 소문은 말로 퍼진다. 들려오는 말에 휩싸이지 말라. 말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 거짓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흥미하게 하는 것이다. 휩쓸리게 하는 것이다.

(5)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일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거짓말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산산조각 났다. 두려움을 기도로 이겼다면 거짓말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거짓말과 가짜는 결국 그 정체가 나타난다.

말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말이 되어야 한다.

듣는 훈련은 사실 말하는 훈련이다. 내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기 때문에 그렇다.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말, 존중의 말, 사랑의 말을 내가 먼저 하면, 듣는 내 속사람의 귀가 변화된다. 자동센서가 가동된다. 거짓말, 부정적인 말, 분열, 이간질, 시기, 질투의 말에 경고등이 들어온다. 그 상태가 분별이다. 그러므로 듣는 훈련은 말하는 훈련임을 명심하고 승리하자.

3. 방해를 뚫고 나아가 완성하라.

[느헤미야 6:15]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다

결국 느헤미야는 모든 방해를 뚫고 성벽 공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은 결국 성취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결국 이루어진다. 바로 그 순간 원수의 방해세력은 꺾이게 된다.

[느헤미야 6:16]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말씀을 보니 그들의 기가 꺾였다고 되어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꺾지 못했고, 오히려 원수들의 기가 꺾였다. 놀라운 영적 원리이며 법칙이다. 결국 물러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 원수의 힘은 소멸되게 되어 있다.

내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원수는 물러난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승리이다.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담대하라. 주님은 언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담대함에 원수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블레셋의 기가 꺾이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패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담대함으로 모든 방해를 뚫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자.